

Session 11 Jesus' Unique Power and Compassion (Lk. 7)

제 11 장 예수님의 특별한 권능과 긍휼 (눅 7 장)

I. INTRODUCTION

도입

- A. In this session, we will look at Jesus' ministry in Galilee as it happened chronologically—being set forth mostly in Luke 7 and supplemented by Mark 3:20-35 and Matthew 11-12.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한다. 이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7 장에 대부분 나와있고, 마가복음 3:20-35 절과 마태복음 11-12 장에 부분적으로 나와있다.

- B. Jesus is seen as One with authority to heal the sick, raise the dead, and forgive sins (Lk. 7). These miracles were done with great compassion for those considered outcasts of society—a Gentile in the occupying army (7:1-10), a helpless widow (7:11-17), and an immoral woman (7:36-50).

여기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죄를 사하신다 (눅 7 장). 예수님은 사회의 버림받은 자들을 향한 큰 긍휼로 이 기적들을 행하셨다. 로마 점령군의 이방인 (7:1-10), 도움이 절실한 과부 (7:11-17), 음행한 여인 (7:36-50).

II. JESUS HEALED THE CENTURION'S SERVANT IN CAPERNAUM (LK. 7:2-10)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다 (눅 7:2-10)

- A. The local elders pleaded with Jesus to heal the centurion's servant (Lk. 7:2-5; cf. Mt. 8:5-6). This story is expanded only in Luke's gospel.

이 지역의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주시기를 구했다 (눅 7:2-5; 비교 8:5-6).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기록하고 있다.

¹Now when He concluded all His sayings in the hearing of the people, He entered Capernaum. ²And a certain centurion's servant, who was dear to him, was sick and ready to die. ³So when he heard about Jesus, he sent elders of the Jews to Him, pleading with Him to come and heal his servant. ⁴And when they came to Jesus, they begged Him earnestly, saying that the one for whom He should do this was deserving, ⁵"for he loves our nation, and has built us a synagogue."

(Lk. 7:2-5)

¹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 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²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³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⁵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눅 7:2-5)

1. **Roman centurion:** A centurion was a Roman officer in charge of one hundred men. The Jews did not like Roman soldiers since they were part of an occupying military force in Israel, but the local Jewish leaders in Capernaum respected this man and spoke to Jesus for him, as he had financed their synagogue himself instead of taking their money like other centurions.

로마 백부장: 백부장은 백 명을 거느리는 로마 관원이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 병사들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가버나움 지역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사람을 존경했고 그를 위해 예수님에게 부탁했다. 이 백부장은 다른 백부장들처럼 돈을 거둬가지 않고,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재정을 공급했다.

2. Matthew described the servant as paralyzed and in tormenting pain (Mt. 8:6).

마태복음은 이 종이 중풍에 걸렸고 고통당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마 8:6)

- B. The centurion felt unworthy to have Jesus come to his house (Lk. 7:6-10; cf. Mt. 8:8-13). The centurion understood that it would defile a Jew in a ceremonial way to enter a Gentile's home. He did not feel that God owed anything to him for having financed a Jewish synagogue.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눅 7:6-10; 비교. 마 8:8-13).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정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유대인 회당에 재정을 대준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⁶...when He was already not far from the house, the centurion sent friends to Him, saying to Him, "Lord, do not trouble Yourself, for I am not worthy that You should enter under my roof... ⁷But say the word, and my servant will be healed. ⁸For I also am a man placed under authority, having soldiers under me. And I say to one, 'Go,' and he goes; and to another, 'Come,' and he comes..." ⁹When Jesus heard these things, He marveled at him...and said to the crowd that followed Him, "I say to you, I have not found such great faith, not even in Israel!" ¹⁰And those who were sent, returning to the house, found the servant well who had been sick." (Lk. 7:6-10)

⁶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⁷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⁸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⁹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¹⁰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눅 7:6-10)

1. ***I too am a man under authority:*** The centurion recognized that Jesus had great authority over sickness because He was under God's authority—thus, he believed Jesus was sent by God.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질병에 대해 권위가 있는 것을 이해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었다.

2. ***Marvel:*** That was an amazing insight for a Gentile who did not even know the Scriptures.

놀랍게 여겨: 이는 성경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에게는 놀라운 통찰력이었다.

- C. Matthew included two more important statements by Jesus (Mt. 8:11-13).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2 개를 더 기록하고 있다 (마 8:11-13).

¹¹I say to you that many [Gentiles] will come from east and west, and sit down with Abraham, Isaac, and Jacob in the kingdom of heaven. ¹²But the sons of the kingdom will be cast out into outer darkness.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¹³ Then Jesus said to the centurion, “Go your way; and as you have believed, so let it be done for you.” (Mt. 8:11-13)

¹¹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방인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¹²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¹³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마 8:11-13)

1. *Many*: Gentiles will accept Jesus (8:11).

많은 사람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임 (8:11).

2. *As you have believed*: The Lord releases His blessing related to our faith (8:13).

네 믿은 대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신다 (8:13).

III. JESUS RAISED A WIDOW'S SON FROM THE DEAD IN THE CITY OF NAIN (LK. 7:11-17)

예수님께서 나인 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다 (눅 7:11-17)

A. A large crowd gathered to Jesus in Nain (about 25 miles from Capernaum and 5 miles from Nazareth) in the autumn AD 28. Jesus showed compassion for a widow whose son died. She was in emotional pain as well as financial pressure, having neither a husband nor a son to support her.

AD 28 년 가을, 많은 수의 사람들은 나인성의 예수님에게 모여들었다 (가버나움에서 25 마일, 나사렛에서 5 마일 떨어진 곳). 예수님은 아들을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녀는 자신을 먹여 살릴 남편이나 아들이 없었으며, 감정적, 재정적으로 고통을 겪었다.

¹¹ Now it happened, the day after, that He went into a city called Nain; and many of His disciples went with Him, and a large crowd. ¹² And...behold, a dead man was being carried out, the only son of his mother; and she was a widow... ¹³ When the Lord saw her, He had compassion on her and said to her, “Do not weep.” ¹⁴ Then He came and touched the open coffin...He said, “Young man, I say to you, arise.” ¹⁵ So he who was dead sat up and began to speak. (Lk. 7:11-15)

¹¹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¹²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 ¹³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¹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¹⁵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눅 7:11-15)

IV. JESUS SPOKE ABOUT JOHN THE BAPTIST (LK. 7:18-23)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다 (눅 7:18-23)

A. John's disciples asked questions in Galilee (Lk. 7:18-23; cf. Mt. 11:2-6). John was in prison when he heard about the miracles Jesus did, so he sent two disciples to ask Jesus a question (Mt. 11:2). The time was probably in the autumn of AD 28, about two years after he baptized Jesus (26 AD).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질문을 했다 (눅 7:18-23; 비교. 마 11:2-6).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에 대해 들었고, 자신의 두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 질문하게 했다 (마 11:2). 이 때는 대략 AD 28 년 가을이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날로부터 (AD 26 년) 2 년 후였다.

¹⁹ And John, calling two of his disciples to him, sent them to Jesus, saying, "Are You the Coming One...?"

²⁰ When the men had come to Him, they said, "John the Baptist has sent us to You, saying, 'Are You the Coming One...?'" ²¹ That very hour He cured many of infirmities...and to many blind He gave sight.

²² Jesus answered..., "Go and tell John the things you have seen and heard: that the blind see, the lame walk, the lepers are cleansed, the deaf hear, the dead are raised..." ²³ And blessed is he who is not offended because of Me." (Lk. 7:19-23)

¹⁹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 하라 하며 ²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쭙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 하더이다 하니 ²¹ 마침 그 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²²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슴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²³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눅 7:19-23)

1. John was in prison and wanted his disciples to follow Jesus; thus, they needed to be convinced of who Jesus was. John knew who Jesus was—he saw the dove descend on Him and heard the Father's voice at Jesus' baptism. They were both familiar with each other's supernatural birth.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었고,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분 위에 임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의 출생과 연관된 초자연적인 일들을 잘 알고 있었다.

2. John's disciples were surely acquainted with many Messianic prophecies as in Isaiah 35:4-6: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사야 35:4-6 절과 같은 메시아 예언들을 잘 알고 있었다.

⁴Behold, your God will come... ⁵then the eyes of the blind shall be opened, and the ears of the deaf shall be unstopped. ⁶Then the lame shall leap...and the tongue of the dumb sing. (Isa. 35:4-6)

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 하라 ⁵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⁶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뿔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 (사 35:4-6)

3. *Not offended*: People stumble over what God does and *what He does not do*. Jesus knew that God was not going to intervene to save John. Both Jesus and John understood that this might confuse and offend John's disciples, so John sent them to Jesus to see proof He was Messiah.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해 실족하기도 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기도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구하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로 인해 혼란스러울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인하게 했다.

- B. Jesus spoke to the multitude to vindicate John (Lk. 7:24-35; cf. Mt. 11:7-19)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을 높이셨다 (눅 7:24-35; 비교. 마 11:7-19).

²⁴...He began to speak to the multitudes concerning John: "What did you go out into the wilderness to see? A reed shaken by the wind? ²⁵...A man clothed in soft garments? Indeed those ...live in luxury are in kings' courts. ²⁶But what did you go out to see? A prophet? Yes, I say to you, and more than a prophet. ²⁷This is he of whom it is written: 'Behold, I [the Father] send My messenger before Your [Jesus'] face, who will prepare Your way before You.' ²⁸For I say to you, among those born of women there is not a greater prophet than John the Baptist; but he who is least in the kingdom of God is greater than he." (Lk. 7:24-28)

²⁴ ...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²⁵ 그러면 ...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²⁶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²⁷ 기록된 바 보라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사자를 네 [예수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라 ²⁸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눅 7:24-28)

1. **A reed shaken:** Jesus realized that the multitudes thought John was wavering. A reed shaken by the wind is a reference to a weak man who was wavering (because of persecution). If John had stopped preaching righteousness, he could have been freed from prison (Mk 6:20). John stood strong and endured prison instead of compromising in order to be received by Herod.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예수님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아셨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땀박으로 인해)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을 가리킨다. 만일 세례 요한이 정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췄다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막 6:20).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타협하지 않고 든든하게 서서 감옥을 견뎌냈다.

2. **Greater than John:** John was the greatest old-covenant prophet, but a new-covenant believer has greater privileges in God than John such as possessing the indwelling Spirit (1 Cor. 6:17).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 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내주하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요한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릴 수 있다 (고전 6:17).

- C. Jesus declared that that generation did not respond properly to God (7:31-35). Both Jesus and John preached promises of good news described as "we played the flute," but many did not rejoice at it. They both gave warnings of judgment described as "we mourned," but many did not repent. Wisdom will be seen by "her children" or the deeds of those who embrace His and John's ministry.

예수님은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며 나오지 않았음을 선포하셨다 (7:31-35).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복음의 약속들을 전하며 "피리를 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기뻐하지 않았다. 또한 심판에 대해 경고하며 "애곡하였지만," 많은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지혜는 "자신의 자녀들"에 의해 확인되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받아들인 이들의 행동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³¹And the Lord said, "To what then shall I liken the men of this generation...?" ³²They are like children sitting in the marketplace and calling to one another, saying: 'We played the flute for you, and you did not dance; we mourned to you, and you did not weep.' ³³For John the Baptist came neither eating bread nor drinking wine, and you say, 'He has a demon.' ³⁴The Son of Man has come eating and drinking, and you say, 'Look, a glutton and a winebibber, a friend of tax collectors and sinners!' ³⁵But wisdom is justified by all her children." (Lk. 7:29-35)

... ³¹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³²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³³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³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떡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³⁵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눅 7:29-35)

D. Jesus rebuked three cities in Galilee—Chorazin, Bethsaida, and Capernaum (Mt. 11:20-30).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는 세 도시를 꾸짖으셨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마 11:20-30).

²⁰ *He began to rebuke the cities in which most of His mighty works had been done, because they did not repent:* ²¹ *“Woe to you, Chorazin! Woe to you, Bethsaida! For if the mighty works which were done in you had been done in Tyre and Sidon, they would have repented...”* ²² *But I say to you, it will be more tolerable for Tyre and Sidon in the day of judgment than for you.* ²³ *And you, Capernaum... will be brought down to Hades; for if the mighty works which were done in you had been done in Sodom, it would have remained until this day.* ²⁴ *But I say to you that it shall be more tolerable for the land of Sodom in the day of judgment than for you.”* (Mt. 11:20-24)

²⁰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때에 책망하시되²¹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²²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²³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²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마 11:20-24)

1. Capernaum was the base for Jesus' ministry. Chorazin and Bethsaida were cities very close to Capernaum. Tyre and Sidon were prominent Phoenician cities that experienced judgment under Nebuchadnezzar and Alexander the Great (Ezek. 26-28).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 근거지였다. 고라신과 벳세다는 가버나움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다.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의 유명한 도시였으며, 느부갓네살과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 심판을 겪은 곳이었다 (겔 26-28 장).

2. The great privilege of seeing Jesus' power brings a corresponding greater responsibility. There are different degrees of judgment in hell and varying degrees of reward in heaven.

예수님의 권능을 목격하는 큰 특권을 누리는 것에는 더 큰 책임이 요구되었다. 지옥에는 다양한 강도의 심판이 있으며, 하늘에는 다양한 정도의 상급이 있다.

V. A SINFUL WOMAN WASHED AND ANOINTED JESUS' FEET (LK. 7:36-50)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고 기름을 붓다 (눅 7:36-50)

A. An immoral woman anointed Jesus' feet while He dined with a Pharisee in Galilee (Lk. 7:36-38). This perfume was probably bought with the proceeds of her sin—prostitution.

한 음행한 여인은 예수님이 갈릴리의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그분의 발에 기름을 부었다 (눅 7:36-38). 이 향유는 아마도 이 여인이 몸을 팔고 죄를 지으며 생긴 돈으로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³⁶ *...He went to the Pharisee's house...* ³⁷ *Behold, a woman in the city who was a sinner...brought an alabaster flask of fragrant oil,* ³⁸ *...and she began to wash His feet with her tears and wiped them with the hair of her head; and she kissed His feet and anointed them with the fragrant oil.* (Lk. 7:36-38)

³⁶ ...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³⁷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³⁸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눅 7:36-38)

- B. Those who understand that they have been forgiven much will love God much (7:39-50). Any who lose sight of being forgiven will lack gratitude and thus lose the ability to remain zealous in their love for God (7:47). Gratitude sustains our love. We must not allow our gratitude to wane by losing sight of *how much better* God treats us compared to how we deserve to be treated.

자신이 죄사함을 많이 받았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된다 (7:39-40).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은 자들은 감사함이 사라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잃어버리게 된다 (7:47). 감사함은 우리의 사랑이 지속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치 못할 정도로 귀하게 대하신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함을 계속해서 가져야 한다.

⁴⁰ *And Jesus answered...⁴¹ "There was a certain creditor who had two debtors. One owed five hundred denarii, and the other fifty. ⁴² And when they had nothing with which to repay, he freely forgave them both. Tell Me, therefore, which of them will love him more?" ...⁴⁴ Then He turned ...said to Simon, "...you gave Me no water for My feet, but she has washed My feet with her tears...⁴⁵ You gave Me no kiss, but this woman has not ceased to kiss My feet since the time I came in. ⁴⁶ You did not anoint My head with oil, but this woman has anointed My feet with fragrant oil. ⁴⁷ Therefore...her sins, which are many, are forgiven, for she loved much. But to whom little is forgiven, the same loves little." ⁴⁸ Then He said to her, "Your sins are forgiven."⁴⁹ And those who sat at the table with Him began to say to themselves, "Who is this who even forgives sins?"⁵⁰ ...He said to the woman, "Your faith has saved you. Go in peace." (Lk. 7:40-50)*

⁴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 ⁴¹ 이르시되 빛 주는 사람에게 빛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졌는데 ⁴²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 ⁴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⁴⁵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⁴⁶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⁴⁷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⁴⁸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⁴⁹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⁵⁰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눅 7:40-50)

- C. Jesus began His second tour of Galilee in the autumn AD 28. Women supported Him (Lk. 8:1-3).

예수님은 AD 28년 가을에 두 번째로 갈릴리를 다니셨으며, 여인들이 그분을 섬겼다 (눅 8:1-3).

¹ *...He went through every city and village, preaching...the kingdom of God...²and certain women who had been healed of evil spirits and infirmities—Mary called Magdalene, out of whom had come seven demons, ³and Joanna the wife of Chuza, Herod's steward, and Susanna, and many others who provided for Him from their substance. (Lk. 8:1-3)*

¹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²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³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눅 8:1-3)

- D. Jesus' first *public* rejection was by Jewish leaders who came from Jerusalem to Galilee (Mk. 3:22-30; cf. Mt. 12:22-37). Jesus defined blasphemy against the Holy Spirit as attributing the Spirit's power and miracles to the work of the Satan (Mk. 3:29-30).

예수님을 처음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거절한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온 유대인 지도자들이었다 (막 3:22-30; 비교. 막 12:22-37). 예수님은 성령을 훼방하는 것을 성령님의 능력과 기적을 사탄의 일이라고 치부하는 일로 말씀하셨다 (막 3:29-30).

²²*The scribes who came down from Jerusalem said, "He has Beelzebub," and, "By the ruler of the demons He casts out demons."* ²³*So He called them to Himself and said to them in parables: "How can Satan cast out Satan? ²⁴If a kingdom is divided against itself, that kingdom cannot stand...²⁶And if Satan has risen up against himself...he cannot stand...²⁸Assuredly, I say to you, all sins will be forgiven the sons of men...²⁹but he who blasphemes against the Holy Spirit never has forgiveness...³⁰because they said, "He has an unclean spirit."* (Mk. 3:22-30)

²²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²³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²⁴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 ²⁶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 ²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²⁹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³⁰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막 3:22-30)

- E. Jesus' family came to see Him in Galilee (Mk. 3:31-35; cf. Mt. 12:46-50; Lk 8:19-21).

예수님의 가족은 그분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왔다 (막 3:31-35; 비교. 마 12:46-50; 눅 8:19-21).

³¹*His brothers and His mother came, and standing outside they sent to Him, calling Him...*

³⁴*And He looked...at those who sat about Him, and said, "Here are My mother and My brothers! ³⁵For whoever does the will of God is My brother and My sister and mother."* (Mk. 3:31-35)

³¹ 그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 ³⁴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³⁵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막 3:31-35)